

## [ 바둑 ]

## 미녀기사 탕리 '금녀의 집' 제자됐다

네웨이핑 9단, 첫 여제자 받아들여

중국 바둑의 기성으로 불리는 네웨이핑 9단이 '여자 제자는 절대로 안받겠다'는 원칙을 깨고 탕리(사진) 초 단을 제자로 받아들였다.

탕리는 중국의 대표 미녀 기사이다. 그녀가 잇 단장을 당시 바둑계가 들썩일 정도로 미모를 인정받았었다.

당시 네웨이핑은 "미녀는 바둑을 못둔다"는 말로 까여내렸지만 최근 탕리를 제자로 받아들여 바둑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네웨이핑은 제자를 받아들일 때 구리, 창하오 등 몇 명의 제자들 의견을 듣는다. 예전에 네웨이핑이 제자로 받아들이고 싶은 학생이 있었으나 구리, 창하오 등이 반대해 받아들여지 않았다.

이번에 탕리를 제자로 받아들인 것은



에 대해서 네웨이핑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자들이 탕리를 강력하게 추천했다. 그들이 이 반대하지 않으니 나도 별다른 거절 사유가 없다"라고 말했다.

네웨이핑 9단은 탕리 초단에게 직접 바둑을 가르치거나 하지는 않을 것임을 명확히 밝혔으며, 구리, 창하오 등이 대신 스승의 역할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명문대학인 푸단대학에서 신문학을 전공하고 TV에서 바둑해설자로 활동하던 탕리는 지난해 중국 드라마에도 출연하면서 더욱 인기를 이끌고 있다.

/오피니언 기자 kroh@



신안군이 프로 바둑팀을 창단해 바둑 저변 확대에 나서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광주에서 열린 바둑리그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 신안군 '바둑 메카' 되나

## 이세돌 기념관 이어 태평염전과 공동 프로팀 창단

## 바둑리그 선전 여부·신안 출신 이세돌 영입 관심



최근 한국 바둑을 위협하고 있는 중국 바둑 대표팀의 훈련 모습.

(사이버으로 제공)

## 몰라보게 달라진 중국 바둑

## 용·호·표 대항전 등

## 집단훈련 방식 성과

세계 최정상을 지키고 있는 한 국 바둑의 아성에 도전장을 던진 중국 프로기사들은 어떤 훈련을 받을까?

중국의 대표적인 훈련 방법은 선수들끼리 팀을 꾸려 실력을 쌓는 대항전이다.

중국 국가비단대표팀 내부에서 조직된 대회인 '용(龍)·호(虎)·표(豹) 대항전'이 대표적이다. 이 대회는 각 7명씩으로 구성된 용팀, 호팀, 표팀 3개 팀이 농심신라면과 같은 연승전 방식으로 훈련하는 비공식 시합이다.

올해 구성된 용팀은 중국 바둑

의 한 시대를 주도했던 일명 '7소통' 세대들로 창하오, 저우우하양, 샤오웨이강, 퀴시허 9단, 왕웨이, 류징 8단, 딩웨이 7단 등이다. 호팀은 구리 9단, 풍진 7단, 씨에허 7단, 웅시 9단, 후야오위 8단, 치우쥔 8단, 류싱 7단 등으로 팀을 꾸렸다. 막내팀인 표팀은 천야오 9단, 박문요, 저우루이양, 리제, 구링이 5단, 스위에 4단, 뤄지 3단 등으로 구성됐다.

이 바둑팀은 신안군과 태평염전이 각각 1억5천만원씩 모두 3억원을 출자했고, 2009 KB국민은행 한국바둑리그에 참가한다.

2009 KB한국바둑리그는 4월 말까

지 전체 팀구성을 마치고, 5월부터 본격적인 순위 경쟁에 돌입한다. KB국민은행이 3년 연속 메인후원사로 등록되며, KIXX, 티브로드, 신안군, 바투, 한계임 등 현재 5개 팀이 시즌 참가의사를 밝혔다.

신안군은 지난달 3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박우랑 신안군수와 손일선 태평염전 사장, 허동수 한국기원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안태평천일염프로바둑팀' 창단식을 열었다.

신안군은 지난달 30일 군청 대회의

실에서 박우랑 신안군수와 손일선 태평염전 사장, 허동수 한국기원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안태평천일염프로바둑팀' 창단식을 열었다.

신안군은 지난달 3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박우랑 신안군수와 손일선 태평염전 사장, 허동수 한국기원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안태평천일염프로바둑팀' 창단식을 열었다.

신안군은 지난달 30일 군청 대회의

실에서 박우랑 신안군수와 손일선 태평염전 사장, 허동수 한국기원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안태평천일염프로바둑팀' 창단식을 열었다.

신안군은 지난달 30일 군청 대회의

실에서 박우랑 신안군수와 손일선 태평염전 사장, 허동수 한국기원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안태평천일염프로바둑팀' 창단식을 열었다.

신안군은 지난달 30일 군청 대회의

실에서 박우랑 신안군수와 손일선 태평염전 사장, 허동수 한국기원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안태평천일염프로바둑팀' 창단식을 열었다.

신안군은 지난달 30일 군청 대회의

실에서 박우랑 신안군수와 손일선 태평염전 사장, 허동수 한국기원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안태평천일염프로바둑팀' 창단식을 열었다.

신안군은 지난달 30일 군청 대회의

실에서 박우랑 신안군수와 손일선 태평염전 사장, 허동수 한국기원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안태평천일염프로바둑팀' 창단식을 열었다.

신안군은 지난달 30일 군청 대회의

실에서 박우랑 신안군수와 손일선 태평염전 사장, 허동수 한국기원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안태평천일염프로바둑팀' 창단식을 열었다.

신안군은 지난달 30일 군청 대회의

실에서 박우랑 신안군수와 손일선 태평염전 사장, 허동수 한국기원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안태평천일염프로바둑팀' 창단식을 열었다.

신안군은 지난달 30일 군청 대회의

실에서 박우랑 신안군수와 손일선 태평염전 사장, 허동수 한국기원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안태평천일염프로바둑팀' 창단식을 열었다.

신안군은 지난달 30일 군청 대회의

실에서 박우랑 신안군수와 손일선 태평염전 사장, 허동수 한국기원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안태평천일염프로바둑팀' 창단식을 열었다.

신안군은 지난달 30일 군청 대회의

실에서 박우랑 신안군수와 손일선 태평염전 사장, 허동수 한국기원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안태평천일염프로바둑팀' 창단식을 열었다.

신안군은 지난달 30일 군청 대회의

실에서 박우랑 신안군수와 손일선 태평염전 사장, 허동수 한국기원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안태평천일염프로바둑팀' 창단식을 열었다.

신안군은 지난달 30일 군청 대회의

실에서 박우랑 신안군수와 손일선 태평염전 사장, 허동수 한국기원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안태평천일염프로바둑팀' 창단식을 열었다.

신안군은 지난달 30일 군청 대회의

실에서 박우랑 신안군수와 손일선 태평염전 사장, 허동수 한국기원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안태평천일염프로바둑팀' 창단식을 열었다.

신안군은 지난달 30일 군청 대회의

실에서 박우랑 신안군수와 손일선 태평염전 사장, 허동수 한국기원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안태평천일염프로바둑팀' 창단식을 열었다.

신안군은 지난달 30일 군청 대회의

실에서 박우랑 신안군수와 손일선 태평염전 사장, 허동수 한국기원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안태평천일염프로바둑팀' 창단식을 열었다.

신안군은 지난달 30일 군청 대회의

실에서 박우랑 신안군수와 손일선 태평염전 사장, 허동수 한국기원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안태평천일염프로바둑팀' 창단식을 열었다.

신안군은 지난달 30일 군청 대회의

실에서 박우랑 신안군수와 손일선 태평염전 사장, 허동수 한국기원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안태평천일염프로바둑팀' 창단식을 열었다.

신안군은 지난달 30일 군청 대회의

실에서 박우랑 신안군수와 손일선 태평염전 사장, 허동수 한국기원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안태평천일염프로바둑팀' 창단식을 열었다.

신안군은 지난달 30일 군청 대회의

실에서 박우랑 신안군수와 손일선 태평염전 사장, 허동수 한국기원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안태평천일염프로바둑팀' 창단식을 열었다.

신안군은 지난달 30일 군청 대회의

실에서 박우랑 신안군수와 손일선 태평염전 사장, 허동수 한국기원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안태평천일염프로바둑팀' 창단식을 열었다.

신안군은 지난달 30일 군청 대회의

실에서 박우랑 신안군수와 손일선 태평염전 사장, 허동수 한국기원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안태평천일염프로바둑팀' 창단식을 열었다.

신안군은 지난달 30일 군청 대회의

실에서 박우랑 신안군수와 손일선 태평염전 사장, 허동수 한국기원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안태평천일염프로바둑팀' 창단식을 열었다.

신안군은 지난달 30일 군청 대회의

실에서 박우랑 신안군수와 손일선 태평염전 사장, 허동수 한국기원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안태평천일염프로바둑팀' 창단식을 열었다.

신안군은 지난달 30일 군청 대회의

실에서 박우랑 신안군수와 손일선 태평염전 사장, 허동수 한국기원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안태평천일염프로바둑팀' 창단식을 열었다.

신안군은 지난달 30일 군청 대회의

실에서 박우랑 신안군수와 손일선 태평염전 사장, 허동수 한국기원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안태평천일염프로바둑팀' 창단식을 열었다.

신안군은 지난달 30일 군청 대회의

실에서 박우랑 신안군수와 손일선 태평염전 사장, 허동수 한국기원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안태평천일염프로바둑팀' 창단식을 열었다.

신안군은 지난달 30일 군청 대회의

실에서 박우랑 신안군수와 손일선 태평염전 사장, 허동수 한국기원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안태평천일염프로바둑팀' 창단식을 열었다.

신안군은 지난달 30일 군청 대회의

실에서 박우랑 신안군수와 손일선 태평염전 사장, 허동수 한국기원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안태평천일염프로바둑팀' 창단식을 열었다.

신안군은 지난달 30일 군청 대회의

실에서 박우랑 신안군수와 손일선 태평염전 사장, 허동수 한국기원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안태평천일염프로바둑팀' 창단식을 열었다.

신안군은 지난달 30일 군청 대회의

실에서 박우랑 신안군수와 손일선 태평염전 사장, 허동수 한국기원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안태평천일염프로바둑팀' 창단식을 열었다.

신안군은 지난달 30일 군청 대회의

실에서 박우랑 신안군수와 손일선 태평염전 사장, 허동수 한국기원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안태평천일염프로바둑팀' 창단식을 열었다.

신안군은 지난달 30일 군청 대회의

실에서 박우랑 신안군수와 손일선 태평염전 사장, 허동수 한국기원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안태평천일염프로바둑팀' 창단식을 열었다.

신안군은 지난달 30일 군청 대회의

실에서 박우랑 신안군수와 손일선 태평염전 사장, 허동수 한국기원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안태평천일염프로바둑팀' 창단식을 열었다.

신안군은 지난달 30일 군청 대회의

실에서 박우랑 신안군수와 손일선 태평염전 사장, 허동수 한국기원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안태평천일염프로바둑팀' 창단식을 열었다.

신안군은 지난달 30일 군청 대회의

실에서 박우랑 신안군수와 손일선 태평염전 사장, 허동수 한국기원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안태평천일염프로바둑팀' 창단식을 열었다.

신안군은